



한국사

4-3강.

[조선 후기] 신분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다.

정리 1 공명첩

- ① 의미 : 나라에서 **벼슬**을 내릴 때 주는 문서로, 벼슬의 내용은 적혀 있으나 벼슬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비워 둔 문서
- ② 공명첩을 발급한 까닭 : 전쟁과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해져 백성들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잘 걷히지 않자 나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
- ③ 공명첩을 발급한 방법 :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**이름**을 적은 공명첩을 주어 벼슬을 내렸음.
- ④ 공명첩을 많이 만들어 낸 결과
 - 공명첩을 받아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 양반의 수가 늘어났음.
 - 이전의 엄격하게 지켜지던 **신분 질서**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흔들리기 시작함.



▲ 공명첩

정리 2 신분제의 변화

- ① 상민이 돈을 주고 **양반의 신분**을 사는 경우도 있었음: 농업이나 상업을 통해 부자가 된 상민이 양반의 신분을 샀음.
- ② 노비가 **상민**이 되도록 해 줌: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 세금을 내게 하였음.
- ③ 양반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생겨남.
- ④ 서얼
 - 서얼: 양반의 자식이지만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았음.
 - 변화: 재능이 있는 서얼이 신분 때문에 벼슬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라에서는 점차 서얼도 **벼슬**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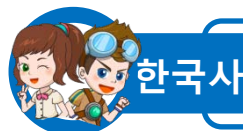


▲ 양반

▲ 중인

▲ 상민

▲ 천민(노비)



한국사

문제.

[조선 후기] 신분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다.

정리 3 역사 속의 여성 위인

허난설헌 (1563~158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《홍길동전》을 지은 허균의 누나임. · 글솜씨가 뛰어났으나 조선에서 인정받지 못했음. · 허난설헌이 세상을 떠난 후 허균이 누나의 시를 모아책으로 만들었음. · 허난설헌의 시는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.
김만덕 (1739~18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주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기생으로 이름을 올렸음. · 어른이 된 후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상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음. · 제주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, 그동안 모은 돈으로 쌀을 사서 제주 백성들을 구하였음.

문제 1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줘.

- ① 양반의 수가 증가하였다.
- ② 가난하게 사는 양반이 생겼다.
- ③ 나라에서 노비가 상민이 되도록 해 주었다.
- ④ 서얼은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.

문제 2 조선 후기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나라에서 한 일을 찾아줘.

- ① 공명첩을 발급하였다.
- ② 직파법을 널리 보급하였다.
- ③ 양반의 신분을 강제로 빼앗았다.
- ④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주었다.

문제 3 다음 중 조선 후기 여성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줘.

- ① 재혼이 자유로웠다.
- ②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.
- ③ 재산을 상속 받을 때 우대받았다.
- ④ 밖에 나갈 때에는 얼굴을 가려야 했다.